

# 손 잡아야 산다... 유통가, 네이버 등 IT공룡과 협업 잇따라

이랜드, 카카오와 기술협력 맞춘 비대면 소비 확산에 콘텐츠 확보 AK플라자도 '네이버페이' 도입 IT공룡의 새로운 독과점 우려도

IT 공룡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통업체의 뉴노멀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유통업체가 IT 기업과 손잡고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불과 몇 해 전만해도 포털사이트·모바일 메신저 운영사가 유통업체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맺을 거라고 예측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보편화됐다.

이랜드그룹은 최근 카카오와 비즈니스와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랜드는 그룹이 가진 유통, 패션, 외식, 호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카카오톡 기반의 온라인 쇼핑 채널을 확보하고, 카카오는 이랜드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군의 콘텐츠를 확보하게 됐다.



이랜드,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 협력 체결 /이랜드그룹

온라인 쇼핑 시장은 다양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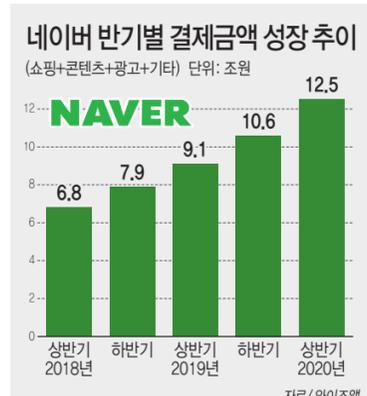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네이버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역대 최고 결제 금액인 12.5조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만 네이버 결제금액은 역대 최대인 2.36조 원을 기록했다.

네이버의 결제금액이란 개인 소비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 결제로 '네이버 페이' (네이버 스마트스

터, 콘텐츠, 기타 온/오프라인 네이버페이)와 광고 등으로 사용 및 충전을 위해 결제한 금액을 의미한다.

네이버 결제금액 중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만의 결제금액은 경쟁사인쿠팡의 올해 상반기 결제 추정금액 9.9조 원, 이베이코리아의 올해 상반기 결제 추정금액 8.7조 원에 이어 한국 이커머스 3위권으로 추정된다.

카카오커머스가 '선물하기' 거래액이 2017년 1조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커지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두 회사의 성장세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플랫폼에 기반한 것이다. 검색 포털 네이버는 상품검색부터 가격비교, 간편결제까지 쇼핑과 관련한 모든 기능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는 메신저 앱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선물하기' 시장을 선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후에는 전통 유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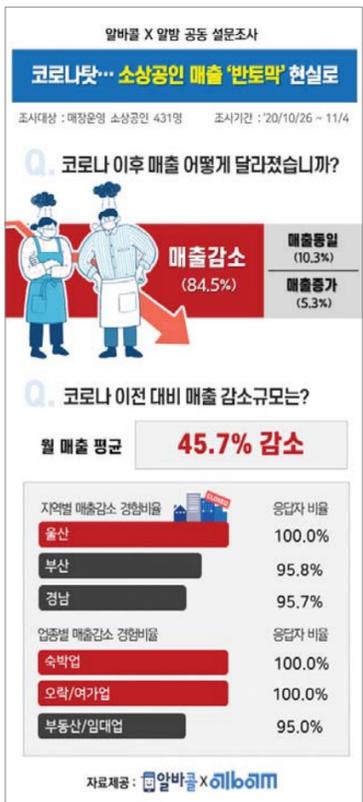
기업이 아닌 IT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쇼핑시장을 장악하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백화점들은 네이버와 손잡고 라이브커머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K플라자의 경우 백화점 전 점포와 AK&2개 점포에 '네이버페이'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했다. 온라인몰이 아닌 실제 백화점 매장에서 '네이버페이'가 가능해진 것은 최하다. AK플라자는 네이버페이 도입을 통해 넓은 소비층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CJ ENM, CJ대한통운 등 계열사를 운영하는 CJ그룹은 네이버와 손을 잡았고, 콘텐츠, 플랫폼,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유통업체와 IT 기업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통가에는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통 유통채널이 아닌 IT공룡의 또 다른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코로나에 자영업자 5명 중 4명 매출 반토막



알바콜·알밤 매출변동 실태 설문 약국, 가장 큰 타격... 70% 감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전국 자영업자 5명 중 4명 가량의 매출이 줄었고, 감소 규모는 월 평균 반토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콜과 알밤이 최근 '코로나19 이후 매출변동 실태'를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매출 증감변화' 질문에 응답자의 무려 84.5%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코로나 이전과 비슷'하거나 (10.3%) '매출이 늘었다' (5.3%)고 답한 경우는 드물었다.

전국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 코로나 19 발생 후 매출 감소가 확인된 가운데 '오락/여가' 및 '숙박업' (각 100.0%로 동물) 참여자 전원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가 하면, '부동산/임대' (95.0%) '식/음료' (85.9%)와 같은 업종에서도 타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 비율을

주요 지역별로도 살펴보면, 수도권은 ▲경기(84.9%) ▲서울(84.6%) ▲인천(78.3%) 순으로 매출이 줄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외 지역에서는 ▲울산(100.0%) ▲부산(95.8%) ▲경남(95.7%) ▲충북(88.9%) ▲전북(84.6%)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구로는 울산, 부산, 경남 세 곳이 매출 감소비율 TOP3에 올랐다.

한편, 주관식 답변을 통해 파악한 실제 월 매출 감소규모는 평균 45.7%에 달했다. 역시 업종별 차이가 확인됐다.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마이너스 70.0%로 나타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고 이어서 ▲정보/통신판매(-53.2%) ▲부동산/임대(-52.4%) ▲의류/잡화(-50.0%) 등의 업종에서 실제 매출감소 규모가 평균을 웃돌며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으로는 ▲도/소매(-45.7%) ▲숙박(-45.0%) ▲음식점/식음료(-42.3%) ▲미용/화장품(-42.0%) 순으로 집계됐다.

/이현진 기자 hj@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싱가포르 스타트업 ship supplies direct 이미지. /ship supplies direct

## 싱가포르 대형선박 물류관리 업체 AI기반 전문솔루션으로 국내 진출

스타트업 'ship supplies direct' 머신러닝 통해 물류배송비 등 절감

대형 선박 대상 물류 운송관리 솔루션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스타트업인 ship supplies direct가 인공지능(AI) 솔루션으로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

현재 전 세계 물류의 80%가 해상으로 운송되며, 대형 선박들을 위한 물류 운송 산업은 연간 약 1690억 달러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ship supplies direct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부품, 식량, 함안이송 등 상당한 규모의 물류 운송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운송 작업들이 수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 선박들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반 전문 물류 운송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이 솔루션을 싱가포르 항만공사와 함께 25개의 공급자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한 결과, 물류 배송 비용이 최대 30% 절감되고 선박 당 배송 대기 시간이 최대 3시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를 통해 성능이 입증되면서 국제 선박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물자공급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플랫폼 'ship supplies direct'를 선보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하나의 대시보드

에서 물류운송과정 실시간 모니터링 ▲머신러닝을 통한 항만 대기 시간 감축 및 물류 배송 절감 ▲자동화를 통한 추가 배송, 문서 작업 등 공정 효율화 ▲선박, 항만, 공급자 등 물류 담당자가 웹이나 모바일로 언제든 쉽게 접속해 활용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위성을 활용한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데이터, 싱가포르 해운청에서 제공하는 날씨 및 선박 교통 데이터, 물류 데이터 등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머신러닝이 학습해 운송과정을 최적화시켜 관계 기관 업무 효율을 향상시킨다.

이 솔루션으로 최대 1000개 이상 운송을 완료할 수 있으며, 항만·해운청 등과 같은 주요 관계 기관과 해상 운송 과정을 실시간 공유 가능하다.

에릭 쉐 대표는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인 부산항과 세계 최고 규모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들이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사업 참가팀 선정을 시작으로 국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물류 서비스 파트너와 기술 파트너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신약개발사 아이디언스, 330억 투자 유치

혁신신약 항암제 후보물질 IDX-1197 임상개발 가속화

일동홀딩스 계열의 신약개발전문회사 아이디언스가 2019년 설립 이후 첫 재무적투자자(FI) 자금유치에 성공했다고 9일 전했다.

아이디언스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330억원 규모의 투자금액이 확보됐고, 내달 약속된 추가 투자금이 납입되면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완료된다. 이번 투자에는 유안타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서울투자파트너스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아이디언스는 확보된 투자금으로 미국 허가 임상시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혁신신약 항암제 후보물질 'IDX-1197'의 임상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현재 검토 중인 항암신약 파이프라인의 추가 도입 및 개발을 본격화한다.

아이디언스는 현재 항암제 후보물질 IDX-1197의 임상1b2a를 전국 18개 임상시험센터에서 7개의 암종을 대상으

로 진행하고 있으며 곧 한국, 미국, 중국에서 위암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IDX-1197은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라는 효소의 작용기전과 암세포 DNA의 특성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표적항암제 후보물질이다.

회사는 최신 비임상,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인한 IDX-1197의 우월성 입증 데이터를 내년 AACR(미국암연구학회), ASCO(미국암학회) 등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